

공감과 사회적 평가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Empathy and Social Evaluation o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s

양 성 은**

Yang, Sung Eun

정 문 자***

Chung, Moon J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ected internal and situational factors o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s. While child's sex and trait empathy were chosen as internal factors, state empathy and social evaluation were regarded as situational factors. The subjects were 72 boys and 72 girls chosen from 288 eleven-year-olds. This selection was based on their empathic scores measured by the Bryant Empathy Scale (1982). Half of the 144 children belonged to the high-trait empathic group and the other half to the low-trait empathic group. Within each of the high- and the low-trait empathic groups, equal numbers of boys and girl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two state empathy conditions and two social evaluation conditions. The state empathy conditions were divided into the arousal condition and the disregarding condition. To control social evaluation, subjects were led to believe that the experimenter either would or would not evaluate their donation of colorful ball-point pens to handicapped children. The data was analyzed by 4-way ANOVA [sex(2) × trait empathy(2) × state empathy(2) × social evaluation(2)].

The results were that (1) children's prosocial behavio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sex, state empathy, and social evaluation, and (2) children's prosocial behavior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ir trait empathy level.

* 연세대학교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연구조교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대 사회가 상호협동 보다는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면서 인간 서로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리학자들은 인간행동의 긍정적 측면인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에 관심을 가지면서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 있다.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개인내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내적 요인에 관한 친사회적 행동 연구들은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되었으며,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적 요인에 관한 탐색은 주로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이란 개인내적 특성과 상황적인 외적 특성의 영향으로 이루어진다(Staub, 1978)'는 제안(Pervin & Lewis, 1978, 재인용)을 고려한다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예언하기 위해서도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구체화시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요인들로는 연령, 성, 도덕적 추론 능력, 역할수용 능력 및 공감(empathy) 등이 있다. 특히 친사회적 행동의 성차에 관한 연구는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이라는 주장(White, 1972)과 성차가 없다는 주장(Radke-Yarrow & Zahn-Waxler, 1983)이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친사회적 행동이 아동이 속한 문화의 성고정관념과 성유형화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으며(Shaffer, 1988), 아동이 처한 상황 자체의 특성이 각 성에 다른 영향을 미쳐 친사회적 행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친사회적 행동의 성차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미국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상황적 특성과 상호작용하는 면을 간과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하겠다.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내적요인으로 성과 연령 외에 지금껏 많이 연구되어 온 것은 아동의 인지적 능력인 도덕적 추론과 역할수용 능력이다. 그러나 도덕적 추론이나 역할수용이라는 인지적 요소만으로 친사회적 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서적 능력인 공감이 친사회적 행동의 필수요소일 뿐 아니라, 타인의 요구를 아는 것과 친사회적 행동을 중재하는 동기적 과정이라는 주장(Coke, Batson, & McDavis, 1978)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공감이 친사회적 행동의 필요조건임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공감을 두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Eisenberg, 1986). 그 첫번째 유형은 자신이 처한 도움요구 상황에서 주어진 자극에 의해 일시적으로 야기되는 상태적 공감(state empathy)이고, 두번째 유형은 늘 안정적이고 기질적 특성을 갖는 특질적 공감(trait empathy)으로서 공감적 정서를 경험하는 능력과 준비도에 있어서의 성향적 차이(dispositional difference)를 말한다. 많은 연구들은 공감을 상태적 공감만으로 정의하여 연구함으로써, 특질적 공감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였다. 그러나 특질적 공감이 공격성 및 친사회적 행동의 개인차를 설명한다고 주장한 Mehrabian과 Epstein(1972)의 연구를 통해 특질적 공감도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검증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원인으로 개인내적 요인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 그런데 실제생활의 장

(場)에서 보면 이러한 개인내적 요인과 더불어 변화하는 주위상황이 아동의 행동에 극적인 영향을 미친다.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으로 주목되어온 변인은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계, 수혜자의 특성, 상황의 위급성과 직접성, 그리고 주위사람(bystander)의 존재 등이다. 이러한 요인들 중 특히 주위 사람의 존재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는 이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작한 Latané와 Darley(1970)의 관점과는 다른 의문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고찰이 요구되고 있다. Latané와 Darley(1970)는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보고도 친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는 주변인들을 연구하면서, 도움요구 상황에서 주변인의 존재는 책임감 분산을 야기하므로 친사회적 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주변인의 존재가 공동책임자라기 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평가자로 여겨질 경우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Archer, Diaz-Loving, Gollwitzer, Davis 및 Foushee(1981)는 친사회적 행동을 요구하는 실험상황에서 피험자는 자신이 실험자로부터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되면,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social evaluation)를 피하기 위해 친사회적 행동을 한다고 보았다. 즉 주변인의 존재가 평가자로 인식될 경우, 친사회적 행동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이다. Archer와 동료들의 연구는 상황적 요인인 주변인의 존재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사회적 평가는 행동의 주된 기준이 외적 자극에 의해 설정되는 아동기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순옥, 198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친사회적 행동의 개인내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개인내적 요인으로 아동의 성과 특질적 공감율, 상황적 요인으로 상대적 공감과 사회적 평가를 선정해 친사회적 행동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내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이 어떻게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일으키며,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 야기된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적 속성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특질적 공감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상대적 공감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4)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적 평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친사회적 행동의 정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의는 그 본질과 속성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학자들 간에 합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친사회적 행동을 정의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흔히 친사회적 행동의 행동적 측면과 동기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타인을 보고 외현적 행동을 나타내기까지의 내적 심리과정인 어떤 것이든 간에 타인의 어려움을 감소 또는 해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친사회적 행동을 ‘어려움에 처한 타인

에게 도움을 주는 다양한 형태의 행동'으로 정의 하고자 한다.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행동유형으로는 도와주기(helping), 나눠주기(sharing), 기부(donation), 위안(comforting), 협동(cooperation) 등이 있다. 실제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연령 수준에 따라 측정되는 행동의 종류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한 연구들(Batson, Duncan, Ackerman, Buckley, & Birch, 1981; Batson, O'Quin, Fultz, Vanderplas, & Isen, 1983)은 도움행동이나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는 행동 등을 친사회적 행동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 유형은 행위 자체 보다는 돕겠다는 의도를 측정한 것이므로 실제행동과는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특히 인지 발달 상으로 형식적 조작기 이전의 사고를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연구할 때는 이러한 측정방법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아동을 대상으로한 연구들(박미주, 1984; Eisenberg, Fabes, Miller, Shell, Shea, & May-Plumlee, 1990)은 보다 구체적이고 관찰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소유물을 또래와 나누어 가지는 나눠주기나 녹음청취 및 녹화된 테이프를 통해 알게된 타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기부행동을 주로 측정하고 있다.

2.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1) 성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요인으로 중요시된 변인은 아동의 성이다. Skarin과 Moely(1976)는 여아가 또래 친구와의 놀이상황에서 위로적이고 협동적인데 비해 남아는 경쟁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Whiting과

Edward(1973)도 비교문화 연구를 통해 여아가 남아보다 더 빈번히 도움행동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Bardwick과 Douvan(1971)은 친사회적 행동의 성차, 특히 여아가 더 친사회적이라는 결과에 주목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경쟁적이고, 자기 주장적이며, 비공감적 행동에 대해 주로 강화를 받는 남아와 비경쟁적, 복종적, 감정적 행동에 대해 주로 강화를 받는 여아와의 차별적 사회화 환경이 그 원인이라고 설명하였다.

Bardwick과 Douvan(1971)의 주장처럼, 남아와 여아에게 차별적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요구되는 상황의 특성 자체도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O'Bryant와 Brophy(1976)는 국민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연구한 결과, 상품으로 받은 동전을 기부하는 행동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린 아동이 어려운 과제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행동이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일상 생활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어린 아동을 돌보는 대리 양육자(baby sitter) 역할을 더 자주하며, 어린 동생을 돕도록 사회화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Shaffer(1988)도 긴급한 구조 상황에서 여아보다 남아가 더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나타낸다는 결과를 통해 성에 따른 차별적 사회화 과정이 상황 자체의 특성과 맞물려 친사회적 행동에 상이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2) 공감

① 공감의 정의

공감에 대한 정의는 서로 상관은 있으나 각기 다른 두가지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다. 먼저, 어떤 학자들은 공감을 타인의 정서적 상태를 지각하였을 때 나타나는 대리적인(vicarious) 정서반응을

로 보고 있다(Feshbach & Roe, 1968). Hoffman(1982)은 이러한 반응을 자신과는 다른 상황에 처한 타인의 감정을 대리경험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이와는 달리, Coke와 동료들(1978)은 공감을 어려움에 처한 타인에 대한 걱정과 연민으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면, 고통이나 슬픔에 처한 사람을 보고 걱정하며 근심을 느끼는 경우가 이 반응을 보이는 경우이다. Coke와 동료들의 정의는 Wispe(1984)가 말한 동정심(sympathy)이나 Hoffman(1984)의 동정적 고통(sympathetic distress)과 유사한 개념이다(Eisenberg, 1986, 재인용). 공감에 대한 개념이 이처럼 타인의 감정에 대한 대리적 경험과 동정심이란 두 요소로 구분되고 있으나, 이 둘은 서로 분리된 정서적 경험이 아니며 상호연관되어 발생한다(Bryant, 1982). 이는 Mehravian과 Epstein(1972)이 내린 공감의 정의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공감을 타인의 상태에 대해 정서적으로 동일한 상태가 되는 것과 동정적 반응이 합해진 것이라고 하여, 공감의 정의에 동정심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도 이 두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공감을 '지각된 타인의 정서에 의해 야기되는 대리적 반응으로서 타인의 정서상태와 유사하며,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한다.

② 공감의 종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개념화 하기 위해, 최근 연구자들(Archer et al., 1981)은 공감을 두가지 유형으로 구별하여 연구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공감의 첫번째 유형은 특질적 공감으로, 공감적 정서를 경험하는 능력과 준비도에 있어 성향적 차이를 말하며 늘 안정적이고 기질적 특성을 갖는다. 두번째 유형은 상태적 공감으로, 특정상황에서 유발되는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

연구자들(Coke et al., 1978; Hoffman, 1982)은 도움요구 상황에서 나타나는 친사회적 행동은 그 상황의 공감적 정서에 의해 유발될뿐 아니라 일반적인 성향적 공감과도 상관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이는 공감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특정상황에서 보다 공감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Hoffman, 1982; Mehrabian & Epstein, 1972). 그러나 Eisenberg(1986)는 특질적 공감이 친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과정에는 상황의 특수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즉, 특질적 공감은 특정상황의 공감유발 단서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질적 공감이 직접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시키지는 않는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③ 공감의 동기적 속성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연구하는 일련의 학자들은 공감을 느낀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갖고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Batson과 동료들(Batson et al., 1981; Batson et al., 1983)은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가 시혜자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기성과 어려움에 처한 타인의 고통 감소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이타성으로 구분되어짐을 논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보고 야기된 상태적 공감에 기초한 친사회적 행동은 이타적인 것이고, 상태적 공감에 기초하지 않은 친사회적 행동은 이기적임을 실험을 통해 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Batson과 동료들(Batson et al., 1981)은 역할수용을 조작하여 상태적 공감을 유발시킨 집단과 유발시키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고, 이들에게 상황의 회피용이성을 조작한 후 전기쇼크를 받고 있는 타인을 위해 피험자가 대신하여 전기쇼크를 받으려 하는지를 조

사했다. 결과적으로 상대적 공감을 느낀 사람들은 회피용이성에 관계없이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나타냈으나 상대적 공감을 억제시킨 집단에서는 상황을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친사회적 행동을 나타냈다. 요약하자면, Batson이 주축이 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공감이론은 어려움에 처한 타인의 조망을 수용하면서 공감적 정서반응이 증가하고, 이는 관찰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고통이 감소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켜 이타적인 친사회적 행동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3) 사회적 평가

사회적 평가란 타인에 의해 내려지는 잠재적인 평가(potential evaluation from others)로서, Archer 및 동료들(1981)의 연구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상황적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Archer와 동료들(1981)은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을 연구한 일련의 실험상황들(Coke et al., 1978; Batson et al., 1983)이 피험자로 하여금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암시를 주며, 도움요구 상황을 도전할만한 과제나 시험으로 지각하도록 함으로써 친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실험상황의 문제는 친사회적 행동이 유발된 원인이 타인에 대한 공감 때문인지, 아니면 사회적 평가를 의식했기 때문인지 알 수 없다는데 있다. 즉, Archer와 동료들이 지적한 실험상황의 문제는 피험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보고 느낀 자신의 공감적 반응을 실험자에게 보고한 후에야 비로서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과 친사회적 행동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실험상황의 사회적 평가 가능성에 대한 근거는 첫째, Schlenker(1975)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공개적 수행 조건에서 자신이 보고한 믿음과 일치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Archer와 동료들(1981)은 이 의견에 동의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타인에게 공감을 표시한 피험자는 자신이 나타낸 정서적 반응에 일치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주위의 압력을 받는다고 보았다. 또다른 근거는 도움요구 상황이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 공개적인 경우, 피험자는 친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주변인들로부터 받을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친사회적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즉 피험자는 이전의 경험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타인에게 공감을 하게되면 그를 도와야한다는 특별한 의무감을 갖게 되고, 돕지않는 것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비난을 예상하여 이를 피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된다.

이처럼 Archer와 동료들(1981)은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간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평가를 독립변인으로 포함시켜 친사회적 행동의 본질을 고찰한 결과, Batson, Coke 및 그 동료들(Batson et al., 1983; Coke et al., 1978)이 주장한 대로 공감을 느끼는 사람이 타인지향적, 이타적 목적만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Fultz, Batson, Fortenbach, McCarthy 및 Varney(1986)는 유사한 실험설계를 조작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 한 후, 사회적 평가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적 공감만 유발되면 친사회적 행동이 나타난다는 상반된 결과를 통해 Archer와 동료들(1981)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이렇듯 유사한 실험조작을 통해 상치된 결과를 얻음으로써, 사회적 평가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평가에 관한 연구들(Archer et al., 1981; Fultz et al., 1986)이 상치된 결과를 보

이는 가운데, 사회적 평가가 성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Feinstein, Schneier 및 Buss(1975)는 자기의식(self-consciousness)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민감하다고 보고했으며, Eisenberg, Shell, Lennon, Beller 및 Mathy(1987)도 만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성에 따라 사회적 평가에 대한 반응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는 이 두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또다른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국민학교 5학년 남아 72명, 여아 72명으로 총 144명이다.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은 만 11세로, 연령이 미치는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친사회적 행동과 공감발달이 안정기에 도달한 만 10세 이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Bryant, 1982).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먼저 서울에 소재한 2개 국민학교 5학년 아동 288명(남아 144명, 여아 144명)의 특질적 공감을 측정하였다. 특질적 공감 질문지의 총점을 토대로 각 성별에 따라 특질적 공감이 높은 상위 25%(남아 36명, 여아 36명)와 특질적 공감이 낮은 하위 25%(남아 36명, 여아 36명)를 선정하고, 이들을 남녀 동수로 상대적 공감 조건과 사회적 평가 조건에 무선배정하였다.

〈표 1〉 성별, 특질적 공감, 상대적 공감, 사회적 평가 조건별 특질적 공감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특질적 공감 상위 집단		특질적 공감 하위 집단		전 체 (N=144)
	상대적 공감 유발 조건	상대적 공감 억제 조건	상대적 공감 유발 조건	상대적 공감 억제 조건	
	사회적 평가가 있는 조건	남 75.78 (4.27)*	남 78.00 (7.37)	남 52.78 (2.64)	
	여 78.67 (2.92)	여 82.33 (6.00)	여 59.67 (2.24)	여 58.67 (4.09)	여 69.83 (11.58)
사회적 평가가 없는 조건	남 75.56 (4.33)	남 77.67 (5.05)	남 50.67 (4.56)	남 51.33 (5.83)	남 63.81 (13.85)
	여 82.67 (4.87)	여 82.22 (6.12)	여 58.44 (3.40)	여 57.33 (3.74)	여 70.17 (13.23)
전 체	남 75.67 (4.17)	남 77.83 (6.13)	남 51.72 (3.77)	남 52.17 (4.94)	남 64.35 (13.38)
	여 80.67 (4.41)	여 82.28 (5.88)	여 59.06 (2.86)	여 58.00 (3.87)	여 70.00 (12.35)

*() 안은 표준편차임.

2. 연구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아동의 성, 특질적 공감 수준, 상태적 공감 유무, 그리고 사회적 평가 유무이며, 종속변인은 친사회적 행동이다.

1) 독립변인 1: 성

연구대상 아동이 여자 아동인가 남자 아동인가의 구별을 말한다.

2) 독립변인 2: 특질적 공감

아동의 특질적 공감은 늘 안정적이고 기질적 특성을 갖는 공감으로 정의하고, Bryant(1982)의 공감측정도구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특질적 공감 질문지는 총 22개 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항상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아동이 자신의 특질적 공감 정도를 평정하게 되어있다. 각 아동의 특질적 공감 수준은 질문지의 총점으로 평가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특질적 공감 수준이 높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특질적 공감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1$ 로 나타났다.

3) 독립변인 3: 상태적 공감

상태적 공감은 일시적으로 특정상황에서 유발되는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하고, 상태적 공감을 유발시키는 조건에서는 아동에게 비디오 테이프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조망을 수용하게 하는 지시문을 주어 상태적 공감을 유발하도록 처치하였다. 상태적 공감을 억제하는 조건에서는 중성적 자극을 기억하도록 하는 지시문을 주어 상태적 공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비디오 테이프의 내용은 뇌성마비 아동과 그 부모가 등장하여 장애자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서, 아동학을 전

공하는 대학원생 4명의 안면타당도를 통해 선정되었다. 비디오 시청은 약 3-5분이 소요되었다.

4) 독립변인 4: 사회적 평가

사회적 평가란 타인에 의해 내려지는 평가로 정의하고, 사회적 평가가 있는 조건에서만 사회적 평가를 받는 처치를 하였다. 사회적 평가가 있는 조건에서는 다음 두가지 방식으로 사회적 평가를 처치하였다. 첫째,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나서 피험자 자신의 느낌을 '공개적으로 보고'한 후, 친사회적 행동을 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처치하였다. 피험자 자신의 느낌을 보고하는 정서상태 측정도구는 Eisenberg, Schaller, Fabes, Bustamante, Mathy 및 Rhodes(1988)가 사용한 것을 본 연구자가 수정, 번안하였다. 모두 7개의 형용사(걱정이 된다, 신경질이 난다, 아이들이 안됐다, 겁이 난다, 불쌍하다, 행복하다, 불안하다)로 구성되며,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이다. 그러나 본 질문지를 사용한 목적은 사회적 평가가 있는 조건을 조작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사용하려는 데 있으며, 질문지 내용에 대한 반응을 따로 분석하려는 데 있지 않다. 둘째,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상황을 공개적인 것으로 조작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처치하였다. 실험자는 면접 동안 아동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고, 도움요구를 요청하는 편지의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으며, 아동이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장면을 직접 관찰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아동은 자신이 실험자로부터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5) 종속변인: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은 어려움에 처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도움요구 상황에서 나타나는 기부행동으로 평가하였다. 기부행동은

상품으로 준 색볼펜 7개를 아동이 학용품 모금상자에 넣은 갯수로 측정하였다. 하나도 기부하지 않은 경우는 0점, 7개를 다 기부한 경우는 7점을 주어 점수화 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실험의 연구대상 아동을 선정하기 위해 1994년 9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서울 시내에 위치한 C국민학교와 Y국민학교 5학년 아동 288명에게 특질적 공감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실시한 특질적 공감 질문지의 총점을 토대로 성별에 따라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을 나누고 이들을 본 실험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실험은 1994년 9월 23일에서 30일 사이에 C국민학교와 Y국민학교에서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자와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하는 보조자 3명이 개별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각의 면접은 모두 국민학교내의 별도의 교실에서 이루어졌으며, 한 아동당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20분이었다. 구체적인 실험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특질적 공감 수준에 따라 선정된 각 아동이 실험실에 들어오면 실험자는 '어린이 TV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였다. 본 실험의 목적은 아동에게 준비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준 후 아동의 의견을 묻고, 이를 TV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실험의 목적을 들은 아동에게 실험자는 각 아동이 배정된 상태적 공감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지시가 적힌 쪽지를 주고, 상태적 공감 유발 및 억제 조작을 하였다. 상태적 공감을 유발하는 조건의 아동에게는 비디오 테이프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조망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비디오의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비디오에 나오는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여러분이 그 '아이'라면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라고 적힌 지시문을 주었다. 상태적 공감을 억제하는 조건의 아동에게는 중성적 자극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비디오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다음 질문의 내용을 기억하세요. 이 아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현재 몇살입니까? 가족은 모두 몇명일까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라고 적힌 지시문을 주었다.

지시문을 상기시킨 후 실험자는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준다. 비디오 시청을 마친 후 각 아동이 배정된 사회적 평가 조건에 따라 사회적 평가가 있는 조작과 없는 조작을 하였다. 사회적 평가가 있는 조건에서는 아동이 비디오 테이프를 시청한 후 아동 자신의 느낌을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정서상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아동이 정서상태 질문지를 마치면 실험자는 아동에게 연구에 참여해 준 댓가로 색볼펜 7자루를 선물하였다. 선물을 주고 실험이 완료되었다고 알린 후에, 본 실험과는 관계없으나 비디오 테이프 속에 등장하는 아이와 같은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장애인 복지 재단'에서 학용품을 모금한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도움요구 상황을 설정하였다. 실험자는 '장애인 복지 재단'에서 보낸 편지(도움을 요구하는 내용)를 아동에게 건네주고 아동이 편지를 다 읽었는지 확인하였다. 확인이 끝나면, "만일 ○○가 장애인 아이들을 돕고 싶다면 지금 받은 볼펜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만큼 저기있는 상자(약 1m 떨어진 책상 위의 학용품 모금함을 가리키며)에 넣고 가세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한테 모아 장애인 복지재단에 보낼게요. 하지만 나누어 주고 싶지 않다면 나누어 줄 필요없으니까, 그냥 교실로 가세요."라고 이야기 하였다. 실험자는 자리를 지키고 앉아 아동이 기부행동을 마치고 실험실을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반면, 사회적 평가가 없는 조건에서 실험자는 아동이 비디오 시청을 마치면 정서 상태 질문지를 실시하지 않고, 실험에 참여해 준 댓가로 색볼펜 7자루를 선물하였다. 상품을 받은 아동에게 실험이 완결되었다고 알리고, '장애인 복지 재단'에서 보낸 편지를 건네주면서 실험자가 나간 후에 편지를 읽어보라고 하였다. 아동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아이들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편지인 것 같은데, 만일 도움을 주고 싶다면 지금 받은 볼펜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만큼 저기있는 상자에 넣고 가세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한테 모아 장애인 복지재단에 보낼게요. 하지만 나누어주고 싶지 않다면 나누어 줄 필요 없으니까, 그냥 교실로 가세요."라고 이야기하였다. 지시를 마친 후 실험자는 실험실을 먼저 나오고, 아동은 혼자 실험실에 남겨진다.

끝으로, 실험실을 나온 각 아동에게 독립변인 조작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보조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보조 질문지는 상태적 공감 유발 및 억제 조작이 효과적이었는지, 사회적 평가 조작이 효과적이었는지, 비디오 테이프 속의 주인공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지각되었는지, 그리고

상품이 매력적이었는지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자료분석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성, 특질적 공감, 상태적 공감 및 사회적 평가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친사회적 행동 점수에 대한 성(2)×특질적 공감(2)×상태적 공감(2)×사회적 평가(2)의 사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 조작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보조 질문지는 t검정과 평균을 산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성, 특질적 공감, 상태적 공감 및 사회적 평가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친사회적 행동이 각 실험 처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 특질적 공감, 상태적 공감 및 사회적 평가 조건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성별, 특질적 공감, 상태적 공감, 사회적 평가 조건별 친사회적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특질적 공감 상위집단		특질적 공감 하위집단		전 체 (N=144)
	상태적 공감 유발 조건	상태적 공감 억제 조건	상태적 공감 유발 조건	상태적 공감 억제 조건	
사회적 평가가 있는 조건	남 5.78 (2.54)*	남 2.33 (3.04)	남 4.22 (2.77)	남 3.67 (2.24)	남 4.00 (2.84)
	여 3.56 (2.74)	여 4.78 (2.28)	여 5.11 (2.93)	여 4.00 (3.08)	여 4.36 (2.73)
사회적 평가가 없는 조건	남 3.44 (3.50)	남 4.00 (3.35)	남 5.33 (2.55)	남 4.56 (3.43)	남 4.33 (3.17)
	여 5.11 (2.76)	여 3.22 (3.60)	여 4.00 (3.20)	여 0.78 (1.99)	여 3.28 (3.25)
전 체	남 4.61 (3.20)	남 3.17 (3.22)	남 4.78 (2.65)	남 4.11 (2.85)	남 4.17 (2.99)
	여 4.33 (2.79)	여 4.00 (3.03)	여 4.56 (3.03)	여 2.39 (3.01)	여 3.82 (3.03)

*()안은 표준편차임.

친사회적 행동이 성, 특질적 공감 수준, 상태적 공감 및 사회적 평가 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성별, 특질적 공감, 상태적 공감, 사회적 평가 조건별 친사회적 행동의 변량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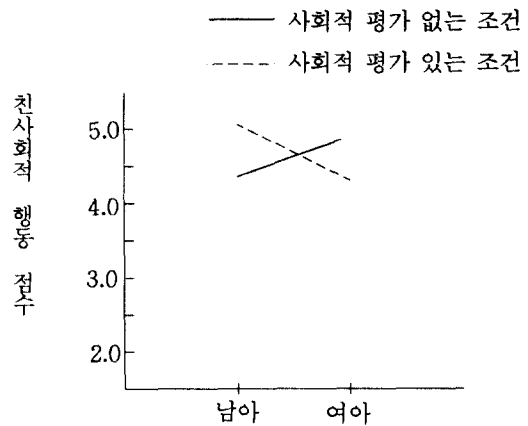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주 효과				
성(A)	4.34	1	4.34	0.51
특질적 공감(B)	0.17	1	0.17	0.02
상태적 공감(C)	47.84	1	47.84	5.64*
사회적 평가(D)	5.06	1	5.06	0.60
상호작용효과				
A×B	14.06	1	14.06	1.66
A×C	0.34	1	0.34	0.04
A×D	18.06	1	18.06	2.13
B×C	2.51	1	2.51	0.30
B×D	1.56	1	1.56	0.18
C×D	1.17	1	1.17	0.14
A×B×C	15.34	1	15.34	1.81
A×B×D	27.56	1	27.56	3.25
A×C×D	45.56	1	45.56	5.37*
B×C×D	5.84	1	5.84	0.69
A×B×C×D	15.34	1	15.34	1.81
오차변량	1086.22	128	8.49	
전체변량	1290.99	143	9.03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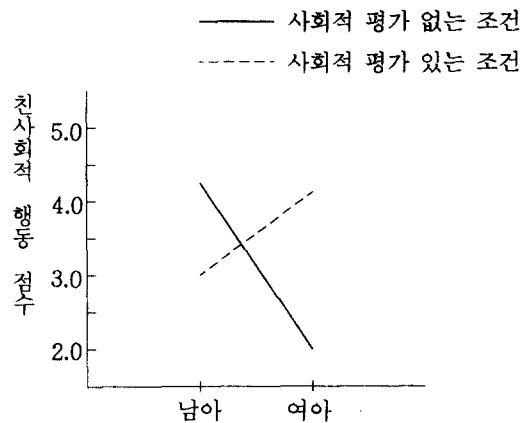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태적 공감 조건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으며(F(1,128)=5.64, p<.05), 성, 상태적 공감 및 사회적 평가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128)=5.37, p<.05).

친사회적 행동의 분석에서 나타난 성, 상태적

공감 및 사회적 평가의 상호작용 효과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은 상태적 공감 유발 조건에서 성별과 사회적 평가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2>는 상태적 공감 억제 조건에서 성별과 사회적 평가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상태적 공감 유발 조건에서 성과 사회적 평가 조건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 점수



<그림 2> 상태적 공감 억제 조건에서 성과 사회적 평가 조건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 점수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상태적 공감을 억제시킨 경우보다 상태적 공감을 유발시킨 경우에 친사회적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각 상태적 공감 조건에 따라 성별과 사회적 평가 조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태적 공감을 유발시켰을 때 친사회적 행동 점수는 남아의 경우 사회적 평가가 있는 조건에서, 여아의 경우 사회적 평가가 없는 조건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상태적 공감을 억제시켰을 때 친사회적 행동 점수는 남아의 경우 사회적 평가가 없는 조건에서, 여아의 경우 사회적 평가가 있는 조건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성별, 상태적 공감 및 사회적 평가 조건에서 나타난 친사회적 행동 점수의 차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한 결과, 상태적 공감을 억제시킨 경우에만 각 성별에 따라 사회적 평가 조건에서 나타난 친사회적 행동 점수의 차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태적 공감을 유발시킨 경우 친사회적 행동 점수는 성과 사회적 평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상태적 공감을 억제시킨 경우 남자는 사회적 평가가 있을 때($M=3.0$)보다 없을 때($M=4.3$), 여자는 사회적 평가가 없을 때($M=2.0$)보다 있을 때($M=4.4$) 유의하게 많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였다.

2. 실험 조작의 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 실험 조작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보조 질문지를 각 문항별로 분석 한 결과, 상태적 공감을 유발시킨 집단($M=3.28$)에 비해 상태적 공감을 억제시킨 집단($M=4.35$)에서 비디오 주인공의 느낌이나 기분보다는 중성적 자극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사회적 평가가 없는

조건($M=1.14$)에 비해 사회적 평가가 있는 조건($M=1.75$)에서 아동 자신이 평가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피험자들은 비디오 속의 주인공이 '매우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지각했으며, 상품이 '마음에 드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실험 조작의 효과는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아동의 성, 특질적 공감, 상태적 공감 및 사회적 평가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태적 공감이 유발되면 아동은 성별이나 사회적 평가 여부에 관계없이 상태적 공감이 유발되지 않은 경우보다 대체로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였다. 이는 Batson과 동료들(Batson et al., 1981, 1983; Fultz et al., 198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보고 느낀 공감이 친사회적 행동의 필요조건임을 지지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Batson과 동료들이 공감이 야기한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적 속성을 이타적이라고 주장한 것과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타인이 고통 받는 것을 볼 때 관찰자에게 대리적인 정서 반응이 유발되고, 이러한 공감적 감정이 타인을 돕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킨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동기의 속성은 타인을 곤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보다 진정한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이타적인 것이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이 느낀 상태적 공감이 이타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사회적 평가가 있을 때는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고 사회적 평가가 없을 때는 친사회적 행동이 감소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은 일단 상태적 공감을 느끼면 사

회적 평가의 유무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상태적 공감이 억제된 조건에 비해 대체로 높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Hoffman(1982)이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에 관한 문헌을 개관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되는 근본 동기는 아니라는 결론과도 일치한다.

아동이 타인에 대해 공감을 느끼면 성별이나 사회적 평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상태적 공감이 유발되지 않은 경우보다 대체로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나타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상태적 공감이 친사회적 행동의 필요조건이며, 그 동기적 속성은 이타적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상태적 공감이 유발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이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상태적 공감이 유발되지 않은 경우, 남아는 사회적 평가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친사회적 행동이 많이 나타났으나, 여아는 사회적 평가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친사회적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 여아와 남아가 사회적 평가 여부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에 차이를 나타낸 것은 사회화 과정의 결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Mischel(1970)은 아동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태도 및 행동 특성을 습득하면서 성유형화(sex typing)된다고 하였다. 친사회적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아동이 이러한 성유형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강조받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Kagan(1964)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여아에게는 동조성, 의존성, 수동성 등이 기대되고, 남아보다 정서적 표현이나 민감성을 더 격려하고 고무해 준다고 하였다. 그 결과 여아는 자라면서 남자보다 더 상황의존적이 되며 인간상호 간의 자극에 민감하며 반응적이고 원조적인 경향을 보인다. Bardwick과 Douvan(1971)도 남아는 일상

생활에서 경쟁적이고 자기주장적이며 비공감적 행동에 대해 주로 강화를 받는 반면 여아는 비경쟁적, 복종적, 감정적 행동에 대해 주로 강화를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성유형화 결과 동일한 상황에서도 남아와 여아는 각기 다른 행동을 나타낼 수 있으며, 상황의 특성이 어느 한쪽 성에 더 적합한 경우 성에 따른 행동의 차이는 더 커질 것이다. 이는 친사회적 행동을 요구하는 상황에도 적용되는데, 예로서 육체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긴급한 구조상황에선 남아들이 더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나타내며(Shaffer, 1988), 어려움에 처한 어린 아동을 돕는 행동은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자주 보여지는 것 등을 들 수 있다(O'Bryant et al., 1976).

본 연구에서 공감을 유발한 후 도움을 요구한 상황 자체가 여성의 표현적 특성을 강조한 것이므로, 사회적 평가가 있을 때 여아가 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나타내고 남아가 그 반대 결과를 나타낸 것은 이러한 성유형화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특질적 공감 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Fultz와 동료들(1986)의 연구와 일치하며, Barnett, Howard, Melton 및 Dino(1982)의 연구에 의해서도 부분적으로 지지된다. Fultz와 동료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특질적 공감을 측정한 후 상태적 공감과 사회적 평가를 조작한 결과, 특질적 공감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Barnett과 동료들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특질적 공감 수준이 높은 아동이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는 상태적 공감이 조작된 조건에서만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Gergen, Gergen 및 Meter(1972)도 어떤 특질 성향(trait disposition)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종류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따라 개인의 고유한 특질 성향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감적 정서를 경험하는 능력과 준비도인 특질적 공감 수준이 직접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에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데는 특정상황의 조건들이 보다 복잡하게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개인내적 요인인 아동의 성 및 특질적 공감과 상황적 요인인 상태적 공감 및 사회적 평가가 친사회적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이 사회적 평가 요인을 간과하거나 공감의 어느 한가지 유형에만 초점을 두고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그친 반면, 본 연구는 행동의 주된 기준이 외적 자극에 의해 설정되는 아동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혔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적 특성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요소로서 역할수용을 통한 공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아동에게 이에 대한 학습 경험을 줌으로써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아동에게 제공한 경험이 자연상황이 아니라 연구자가 유도한 도움 요구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자연적인 실제 상황에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생태학적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기부행동만으로

측정하였으나 돕기, 나누기, 위안 및 협동 등의 여러가지 친사회적 행동을 비교, 종합함으로써 아동의 친사회성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도 공감에 의한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적 속성을 고찰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인 내적과정, 즉 자기보상이나 죄책감 같은 내적요인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친사회적 행동의 본질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박미주(1984). 아동의 이타행동에 있어서 인지 및 정의적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순옥(1988).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및 사회 인지적 요인들. *대한 가정학회지*, 26, 243-253.
- Archer, R. L., Diaz-Loving, R., Gollwitzer, P. M., Davis, M. H., & Foushee, H. C.(1981). The role of dispositional empathy and social evaluation in the empathic mediation of hel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786-796.
- Bardwick, J. M., & Douvan, E.(1971). Ambivalence: The socialization of women. In V. Gormick & B. K. Moran(Eds.), *Woman in sexist society*. New York: Basic Co.
- Barnett, M. A., Howard, J. A., Melton, E. M., & Dino, G. A.(1982). Effect of inducing sadness about self or other on helping behavior in high- and low-empathic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 920-923.
- Batson, C. D., Duncan, B. D., Ackerman, P., Buckley, T., & Birch, K.(1981). Is empathic emotion a source of altruist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290-302.
- Batson, C. D., O'Quin, K., Fultz, J., Vanderplas, M., & Isen, A. M.(1983). Influence of self-reported distress and empathy on egoistic versus altruistic motivation to hel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706-718.
- Bryant, B. K.(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Coke, J. S., Batson, C. D., & McDavis, K. (1978). Empathy mediation of helping:A two-stag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752-766.
- Eisenberg, N.(1986). *Altruistic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NJ: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Eisenberg, N., Fabes, R., Miller, P., Shell, R., Shea, C., & May-Plumlee, T. (1990). Preschoolers' vicarious emotional responding and their situational and dispositional prosocial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36*, 507-529.
- Eisenberg, N., Schaller, M., Fabes, R. A., Bustamante, D., Mathy, R. M., & Rhodes, K.(1988). Differentiation of personal distress and sympathy in children and adult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766-775.
- Eisenberg, N., Shell, R., Lennon, R., Beller, R., & Mathy, R. M.(1987). Prosocial development in middle childhood: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3*, 712-718.
- Feinstein, A., Schneier, M.,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7.
- Feshbach, N. D., & Roe, K.(1968). Empathy in six and seven year olds. *Child Development*, *39*, 133-145.
- Fultz, J., Batson, C. D., Fortenbach, V. A., McCarthy, P. M., & Varney, L. L. (1986). Social evaluation and the empathy-altruism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761-769.
- Gergen, K. L., Gergen, M., & Meter, K. (1972). Individual orientations to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Social Issues*, *8*, 105-130.
- Hoffman, M. L.(1982). Development of prosocial motivation:Empathy and guilt. In N. Eisenberg(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ew York:Academic Press.
- Kagan, J.(1964). Acquisition and significance of sex-typing and sex-role identity. In M. L. Hoffman, & L. W.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ew York:Result Sage.
- Latané, B., & Darley, J. M.(1970). *The unresponsive bystander:Why doesn't he help?* New York:Appleton-Crofts.

- Mehrabian, A., & Epstein, N. A.(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 523-543.
- Mischel, W.(1970). Sex typing and socialization. In P. H. Mussen(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Willey.
- O'Bryant, S. L., & Brophy, J. E.(1976). Sex differences in altruistic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12, 554.
- Pervin, L. A., & Lewis, M.(Eds.)(1978). *Perspectives in interactional psychology*. New York:Plenum Press.
- Radke-Yarrow, M., & Zahn-Waxler, C. (1983). Roots, motive, and patterns i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In J. Reykowski, D. Bar-Tal, & E. Stub (Eds.), *Origins and maintenance of prosocial behavior*. New York:Plenum Press.
- Schlenker, B. R.(1975). Self-presentation: Managing the impression of consistency when reality interferes with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1030-1037.
- Shaffer, D. R.(1988).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CA:Brook/Cole.
- Skarin, K., & Moely, B.(1976). Altruistic behavior:An analysis of age and sex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47, 1159-1165.
- White, G. M.(1972). Immediate and deferred effects of model observation and guided and unguided rehearsal on donating and steal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139-148.
- Whiting, B., & Edwards, C. P.(1973). A cross-cultural analysis of sex differences in the behavior of children aged three to eleve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1, 171-188.